

2020년 11월 2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 사상 첫 3만 포인트 상회

옐런 전 연준의장 재무장관 지명 &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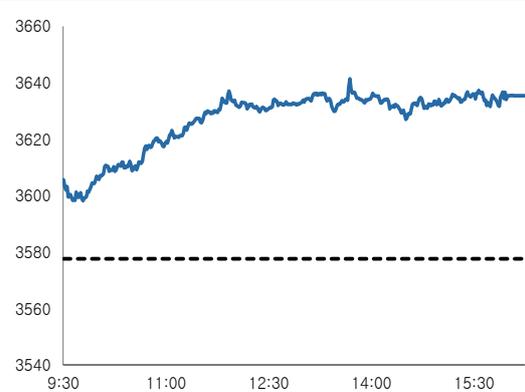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금융, 에너지, 레저 업종 중심 강세

미 증시는 소비심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옐런 전 연준의장에 대한 재무장관 임명과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 속 다우는 사상 첫 3만 포인트 상회. 특히 금융과 에너지, 레저 업종이 상승 주도. 더불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연준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자 차익 매물을 이겨내며 장 후반 대형 기술주도 강세를 보임. 이 결과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지수는 견고함을 보이며 마감(다우 +1.54%, 나스닥 +1.31%, S&P500 +1.62%, 러셀 2000 +1.94%)

옐런 전 연준의장에 대한 재무장관 지명은 금융섹터의 급등을 야기. 옐런 재무장관 지명에 대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은 명확하게 주식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발표. 옐런은 실물 경제에 정통한 가운데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금융시장에 온건 성향을 보여 왔기 때문. 더 나아가 현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이 일했던 점을 감안 미 행정부와 연준의 정책 통합 기대도 긍정적. 특히 시장이 우려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명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와 규제 보다는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우선시 했음을 시사해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가치주의 급등을 불러옴. 여기에 볼커를 초기 내용을 주도했던 워런 의원이 재무장관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주도 급등

한편, 트럼프의 정권 인수 업무 협조 발표에 따른 대선 불확실성 공식 해소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물론 이미 경합지역의 결과 인증을 저지하지 못해 예견된 내용이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재생 에너지 및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를 지지. 더 나아가 추수 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하루 사망자 추이는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코로나 확산 증가율이 지난 주 대비 30%대에서 11%로 둔화된 점,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복지부와 국방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공동 브리핑을 통해 12 월 접종 시작을 발표하자 레저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다우지수 상승을 이끔. 여기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채권 매입 관련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장중 제한적인 변화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장 후반 지수 상승을 견인. 물론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반도체 관련 종목의 경우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는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617.76	+0.58	홍콩항셱	26,588.20	+0.39
KOSDAQ	872.10	-0.14	영국	6,432.17	+1.55
DOW	30,046.24	+1.54	독일	13,292.44	+1.26
NASDAQ	12,036.79	+1.31	프랑스	5,558.42	+1.21
S&P 500	3,635.41	+1.62	스페인	8,143.20	+2.03
상하이종합	3,402.82	-0.34	그리스	702.85	+0.35
일본	26,165.59	+2.50	이탈리아	22,145.06	+2.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 에너지 중심으로 강세

웰스파고(+8.78%)가 열린 전 연준의장에 대한 재무장관 지명으로 규제 강화 등 우려했던 이슈가 완
화되자 급등했다. 더불어 백신 접종 기대로 코로나 우려가 완화된 점도 주택 대출 중심의 웰스파고
에 긍정적이었다. 씨티그룹(+7.05%), JP모건(+4.62%), BOA(+5.81%) 등도 동반 상승했다. 엑손모빌
(+6.66%), 셰브론(+5.04%)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이슈 완화는 SPG(+3.96%) 등 마트 중심의 리츠 금융 회사, 부킹닷컴(+4.14%) 등 여행주,
카니발(+11.28%) 등 크루즈, 라스베가스 샌즈(+2.45%), 메리어트(+6.35%) 등 카지노 호텔 관련주,
다즈니(+3.77%) 등 레저 관련 기업, TJX(+4.09%) 등 소매 유통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다.

테슬라(+6.43%)는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세를 이어가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기후 문제에 강한 변화를
시사하자 퍼스트솔라(+4.02%), 선파워(+4.83%)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마
이크론(-0.36%)과 NVIDIA(-1.39%) 등 여타 반도체 관련주는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부진했다.
베스트바이(-6.96%)는 양호한 실적 불구 높은 배송 비용, 낮은 마진 등을 언급하며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4분기 가이드언스를 제공하지 않자 급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15%	대형 가치주 ETF(IVE)	+2.12%
에너지섹터 ETF(OIH)	+5.41%	중형 가치주 ETF(IWS)	+2.12%
소매업체 ETF(XRT)	+1.79%	소형 가치주 ETF(IWN)	+3.19%
금융섹터 ETF(XLF)	+3.50%	대형 성장주 ETF(VUG)	+1.14%
기술섹터 ETF(XLK)	+1.39%	중형 성장주 ETF(IWP)	-0.1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1%	소형 성장주 ETF(IWO)	+0.54%
인터넷업체 ETF(FDN)	+0.55%	배당주 ETF(DVY)	+3.30%
리츠업체 ETF(XLRE)	-0.05%	신흥국 고배당 ETF(DEM)	+1.77%
주택건설업체 ETF(XHB)	-0.3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0%
바이오섹터 ETF(IBB)	-0.60%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29%	하이일드 ETF(JNK)	+0.26%
곡물 ETF(DBA)	+0.39%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0.32%	Long/short ETF(BTAL)	-3.6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00.95	+5.16%	+10.46%	+37.47%
소재	452.65	+2.50%	+2.84%	+13.03%
산업재	756.30	+1.80%	+2.31%	+15.64%
경기소비재	1,269.93	+1.32%	+1.29%	+2.49%
필수소비재	687.80	+0.68%	-0.94%	+3.98%
헬스케어	1,266.01	+0.28%	-2.11%	+2.64%
금융	475.46	+3.53%	+3.90%	+18.19%
IT	2,138.19	+1.39%	-0.00%	+4.36%
커뮤니케이션	216.17	+2.30%	+1.21%	+7.50%
유틸리티	325.21	+1.11%	-1.83%	-1.06%
부동산	227.68	-0.03%	-2.56%	+5.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실현 매물 Vs. 외국인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7% MSCI 신흥 지수 ETF 는 1.34%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0.9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11 월 초 이후 외국인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액티브 펀드 자금 중심으로 반도체 및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대규모 순매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관련 산업의 업황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며 글로벌 주식시장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물론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이 0.36% 하락하는 등 차익 매물이 출회 된 점은 한국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차익 욕구를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산이 진행 되던 지난 1, 2 분기 이머징 국가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을 단행 했던 외국인이 달러 약세 및 바이든 당선에 따른 자유무역 강화 기대,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 우려 완화 등으로 다시 이머징 국가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번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한국과 인도 증시 중심으로 유입되었고, 최근 반도체, 2 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한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고, 이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지속될지 여부가 오늘 한국 증시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 지표 둔화

11 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01.4)나 예상(98.0)을 하회한 96.1 로 발표되며 코로나 확산 영향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고용 관련 질문이 많은 지표라는 점을 감안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축을 시사한 결과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은 전월 대비 -0.3p, 기대 지수는 -8.9p 를 기록해 향후 전망에 대한 부담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5 세 미만은 전월 대비 2.2p 증가했으나 35~54 세의 경우 -10.7p 를 기록해 향후 소비 둔화가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 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29)이나 예상(25)를 하회한 15 로 발표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가 전월 32 에서 12 로 크게 감소해 부담을 줬다.

9 월 케이스 쉘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3%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6.6% 증가해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4.3% 급등

국제유가는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 소식과 백신 접종 조기 시행 등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특히 바이든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이 상승폭 확대 요인이었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전망과 OPEC+ 장관급 협상 기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시작되고, 백신 접종 기대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변화는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BOE 총재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에 기반해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보합을 보인 가운데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캐나다 달러 등 신흥국과 원자재 관련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소비심리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시작 되었다는 소식과 백신 접종 기대 속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한편, 7 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8 배)를 하회한 2.37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약화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였다.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국채 매입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소비 지표 둔화 및 코로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승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한 때 1,800 달러도 하회한 가운데 1.8% 하락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 국제유가 급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1%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자 1 만 9 천달러를 상회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4.91	+4.30	+7.83	Dollar Index	92.164	-0.37	-0.27
브렌트유	47.86	+3.91	+9.39	EUR/USD	1.1891	+0.42	+0.24
금	1,810.90	-1.80	-4.25	USD/JPY	104.46	-0.06	+0.26
은	23.410	-1.46	-5.48	GBP/USD	1.3359	+0.29	+0.85
알루미늄	1,986.50	+0.66	+0.46	USD/CHF	0.9113	-0.18	-0.03
전기동	7,293.00	+1.61	+3.18	AUD/USD	0.7359	+1.00	+0.79
아연	2,757.00	+1.01	+2.51	USD/CAD	1.3001	-0.62	-0.79
옥수수	432.50	-0.17	+1.35	USD/BRL	5.375	-1.09	+0.95
밀	617.50	+2.15	+2.40	USD/CNH	6.5779	-0.05	+0.46
대두	1,191.25	-0.02	+1.84	USD/KRW	1112.70	+0.21	+0.55
커피	115.90	-0.98	-3.01	USD/KRW NDF1M	1110.90	-0.29	+0.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882	+2.79	+2.46	스페인	0.072	+0.30	-0.10
한국	1.595	+1.30	-2.70	포르투갈	0.030	+0.80	-1.10
일본	0.025	+1.30	0.00	그리스	0.665	+0.10	0.00
독일	-0.563	+1.80	0.00	이탈리아	0.611	-1.20	-2.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